누가복음 강의안 8 대신대학교 신학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추가적 고찰

1.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1-8)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난해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4세기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쟁이요 도둑임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우리는 이 비유가 은행가의 이야기인지 농사꾼의 이야기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비유의 언어는 농촌의 광경을 전제하며, 소작농이 농산물 형태로 지불하는 소작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란 아마도 은행가의 대리인이라기 보다는 토지 관리인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본 비유의 배경은 은행 빚에 대한 비유라기 보다는 소작료에 관한 비유일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은행가, 소작농 둘 다 일단 가능성을 염두해 둘 것이다. 본문의 청지기는 고용자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 이에 대한 청지기의 반응은 이것이다. 그가 선언한 목표는 다른 누군가가 그를 그 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법적인 계획을 한다. 다른 관계자들은 아직 그가 해고당한줄을 모른다. 그는 직접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회계 장부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다. 청지기가 말 그대로 부패해서 쫓겨난다면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을 것이다.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모은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다. 청지기는 채무자의 채무를 상당히 깎아준다. 기름 50말은 거의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농장 노동자의 일 년 반의 품삯이었다. 각 채무자는 청지기가 제안한 대로 채무 내역 변경에 합의한 뒤,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좋은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온동네가 축제분위기로 들썩이면서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한 채권자 주인을 칭송한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주인이 칭송을 받자 비록 그의 재산에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주인은 명예를 얻었다.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채무자들에게 이 모든 일은 사기이고 청지기에게 이러한 일을 위임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이 모든 일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왜냐면 채무자들은 이미 주인을 칭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예를 얻은 주인은 비록 손실을 입었지만, 대놓고 청지기를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이 명예를 입게 해준 청지기를 칭찬한다. 고대에는 공적 타당성과 사적 인식을 구분한다. 사적으로 주인은 청지기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주인의 공적인 태도는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면 주인은 얻을 명예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케네스 베일리는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의 윤리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아 본 비유의 초점은 청지기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T.W. 맨슨은 “나는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재치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다는 것과 정직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다는 말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한다. 곧 본 비유에서 청지기의 행동이 칭찬받은 이유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곧 청지기가 잘 사기를 쳤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청지기의행동중 어떤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비유의 배경으로 고대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왜냐면 기름 백말, 밀 백석을 빚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 액수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듣는 고대 청중들도 비유의 채무자들의 채무 액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 농경사회였던 고대 팔레스타인은 땅을 가진 지주와 소작농으로 나뉜다. 고대에서 땅이 없음이라는 상황은 1세기에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불균등한 분배 (the uneven distribution)과 관련된다.[[1]](#footnote-1) 농부들의 빚 (본 비유에서 채무자들은 농부들이다)이 증가했는데, 빚이 있는 자들은 그 빚이 계속 늘어가고, 지주들은 잉여 자본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 투자했다. 곧,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배경의 특징이었다. 이것은 지주들이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부유한 지주들은 시골에 사는 농부들의 채무를 통제할 수 있었다.[[2]](#footnote-2) 도시의 지주들은 통치 그룹으로서 필연적으로 로마 제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고, AD 66년부터 발생한 유대 전쟁은 이러한 지주들에 대한 농부들의 반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주와 자본가들은 농부들을 압제하는 주된 주체였으며, 팔레스타인은 능징과 고리대금, 그리고 고액의 소작농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본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다. 곧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어찌되었건, 농민들의 소작에 대한 비용, 혹은 채무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의 사기적 행동이 아닌 채무를 절반으로 줄여서 농민들에게 절반의 부담을 경감해준 청지기의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8절). 곧 잘못된 행동이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아들도 농민의 청지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데, 빛의 자녀들도 채무를 줄이는 행동에 동참해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반응이 이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곧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채무의 문제와 부의 분배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하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일 것이다.

1. 나사로와 부자 비유 (눅 16:19-30)

본 비유에서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있다. 자색옷은 매우 값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늘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다. 현대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거리에서 과시하면서 운전하는 사람과 비슷한 심리일 것이다. 고운 베옷은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을 가르킨다. 이건 일종의 유머이다. 현대에 비록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만, 값비싼 겉옷 속에 돌체앤가바나 속옷을 즐겨입는 부유층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비싼 속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 그는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종들에게도 단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음으로써 십계명을 공공연히 어겼다. 그에게는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했다.

하지만 부자의 대문 밖에는 병들고 주리며 천대받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 가난한 자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 나사로는 예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이름이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뜻한다.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다. 나사로는 던져주는 작은 조각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배가 고팠다. 그는 몹시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고 너무 가난하여 구걸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은 일종의 잔인한 농담이다. 거지였고 천대받으며 누구도 돕지 않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나사로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것은 일종이 그의 처지가 개와 비슷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동에서 음식 찌꺼기는 집 지키는 개가 먹는 음식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 데를 핥았다. 중동에서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초기 유대교 전승에서 개를 돼지와 맞먹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 누군가를 개로 부른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욕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다. 미쉬나는 “돼지를 아무데서나 키워서는 안된다. 개를 키우려면 사슬로 묶어 놓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개를 주로 경비견의 용도로 썼지만, 또한 거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기웃거리는 거리의 개들도 존재했다. 헌데를 핥아주었다는 것은 개와 나사로의 친근한 관계를 암시한다. 아마도 비록 천대받는 동물이지만, 말 못하는 동물에게 나사로가 동정을 받았다는 것을 비유에서 암시하는 것 같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를 하늘로 옮겨갔으며 아브라함이 무리를 보내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오른쪽의 영예로운 좌석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눕는다.

얼마뒤 부자도 죽어 장례가 치러진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제 나사로와 부자의 처지는 역전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등장이다.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렇게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가부장이며 창시자이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멤버라는 것을 암시한다. 곧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고 말한다. 곧 부자는 인종적 유대인이지만, 음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는 지상의 삶에서는 유대인 부자로서 대우를 받았지만, 음부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곧 본 비유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의 재정의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게다가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는 유대 지혜 문헌 전통이 비추어 본다면, 본 비유는 그러한 전통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유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부유해지는 것은 이웃과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감기게 만들며, 이생보다는 현생에 집중하게 만든다.

나사로의 비유는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지위의 역전에 대한 구절을 응답하는 것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 불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 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1:51-53). 누가복음 특별 자료인 한 부자의 비유 (눅 12:13-21)을 보라. 누가복음은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것인 것? 우리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배경이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1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의 가난한 자의 늑탈, 고리대금, 특히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곧 소작인에 대한 지주들의 수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수탈은 나사로의 비유의 앞서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배경이 된다. 곧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과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당시 경제적 관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잘 못된 경제적 관행을 꾸짖으시며,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1세기의 가난한 자들 편이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날품팔이이고, 가난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엘리트들에게 멸시 받는 처지였지만, 예수님은 종교 엘리트가 아닌 가난한자들 편이라고 말씀하신다. 곧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위의 역전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람보르기니를 몰고, 돌체앤가바나 속옷을 그들이 입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5-34절 – 누가복음 12:22-34 평행 구절에 관한 연구

A. 마태복음의 배경: 본문의 배경

A.a. 본문의 역사적 배경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서기 45년경부터 115년까지 의견이 다양하다. 만일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가 서기 60년경이라면 그때는 복음이 이방 세계에도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을 때였다. 자연히 기독교회는 유대교와 마찰이 잦게 된 때요 (행13:44-47), 교회의 구성원은 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개종자들로 그 비중이 옮겨질 때였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에게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야 했으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구약에서 이미 선택된 유대 민족과 동일한 가치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화합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태는 유대교에 기독교의 예언적 정통성을 강조키 위해, 또 교회에게는 한 주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A.b. 본문의 지리적 배경

본문은 산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다. 산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애굽기에서 산 (시내산)은 모세가 언약의 돌판과 말씀을 받은 장소이다.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두 번째 모세로서 새로운 윤리와 계명을 말씀하신다. 곧 산상수훈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일 수 있다.

A.c. 메시지를 전달 받는 사람.

본문 내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께 나아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5:1).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본 구절에서 ‘제자’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언급된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독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궁극적으로 전달받는 사람은 독자들이다. 독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살고 행동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B. 본문의 구조

\*단락의 확정

B.a. 본문의 전문맥

본문의 전 문맥에 해당하는 본문은 마 6:19-24의 본문이다. 이 본문은 재물에 대한 본문으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며, 재물에 대한 모티프는 6:25-34로 연결된다. 마태복음의 6:19-24와 6:25-34의 말씀의 긴밀한 관계는 눅 12:22-34의 말씀에 마태복음의 두 말씀이 일부 합쳐져서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특히 6:25의 접속사 “그러므로”)

B.b. 본문의 후문맥

본문의 후문맥에 해당하는 본문은 마 7:1-5(혹은 6)절의 말씀이다. 본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에 해당하는 눅 6:37-38, 41-42에 평행되는 말씀이 존재한다. 마6 :25-34와 마7:1-5의 주제적 연결 고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7:1에는 앞단락과 연결하는 접속사가 6:25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 누가복음 12:22-31과의 비교

|  |  |
| --- | --- |
| 마 6:25-34 | 눅 12:22-31 |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참조: 마 6:19-20)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참조: 마 6:21) |

(양 본문의 주요한 차이는 밑줄로 표시)

누가복음 12:22-34은 한 부자의 비유(눅 12:13-21; 특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눅 12:15))와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비유 (눅 12:35-40)의 사이에 위치한다. 특히 눅 12:41에서 베드로가 왜 이 비유를 하시느냐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다. 곧 눅 12:22-34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문맥에 등장하며 이러한 문맥 속에서 눅 12:22-34은 염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특히 재물에 대한 제자의 태도 그리고 믿음 (특히 눅 12:26)와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마태복음 6:25-34의 말씀은 누가복음 12:22-34의 말씀 처럼 제자도와 관련이 되지만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 없는 마6:34의 존재 그리고, 처음부터 끝가지 염려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 (마 6:25, 27, 31, 34)로 볼 때 누가복음과는 달리 강조점이 염려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가 촛점임을 알 수 있다.

B.c. 본문의 내적 구조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1. 주제 제시 (6:25)

6:25

추론의 접속사 및 권위를 가진 선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론적 권면 (금지의 형식으로-사람의 소극적 행동과 역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권면의 이유 (수사적 질문의 형식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 증거 제시 및 예증 (6:26-30)  
6:26

예증 1 (새의 경우): 공중의 새를 보라

모순적 진술 (청중의 염려에 대한 선이해에 역행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모순의 해결과 이유: (하나님의 행동과 역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비교 및 결론 (수사적 질문의 형식으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27

예증 2 (인간의 목숨의 경우; 수사적 질문의 형식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6:28

문제 제기 (수사적 질문의 형식으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증 3 (백합화의 경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사람의 행동과 역할-생각하여 보라. 믿음과 연관)

모순적 진술 (청중의 염려에 대한 선이해에 역행하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6:29

역접 및 권위를 가진 언급: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6:28의 진술의 심화와 비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6:30 비교 및 결론 (모순의 해결과 이유), (수사적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행동과 역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적 진술 (6:31-34)

6:31

결론적 권면 1 (금지의 형식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32

권면의 이유 (접속사 ‘이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33

결론적 (대안적) 권면 2 (긍정의 형식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34

결론적 (대안적) 권면 3 (금지와 긍정의 형식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3. 본문 연구 및 해석

\*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전체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는데 본 단락에서만 6번이 등장하며, 또한 본 단락이 염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여 (6:25), 염려에 대한 권면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6:25에서의 “염려”는 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접속사 그러므로는 6:24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와 본 단락을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6:24).

접속사 ‘그러므로’ 는 특히 재물에 대한 주제(물질적 필요와 소유에 대한 태도)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6:19-24에서 진술되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6:33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서두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동번역에는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로 번역되며, 분명한 금지의 권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마 5장의 권면 (마 5:21-48)에서 “내가 …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본문에서 나열되어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말한다. 즉 본문의 염려는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조건을 말한다.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26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예증이다.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들이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것을 하지 않는데, 새들이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진술은 당대 하층민의 삶의 모습과 상충되는 진술이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이들이 소작농, 빈농, 혹은 날품팔이 등으로 연명하는 하층민이었고,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대다수의 청중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하층민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새”는 인간과 대조되는 보잘 것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참조: 마 8:20; 눅 9:58).

예수님은 본 단락에서 열 한 번에 걸쳐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신다. “너희”라는 존재가 뿌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6:27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유/예증이며, 수사적 질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 한국어의 명사 “키”는 헬라어로 살아있는 시간 (span of time or lifetime)을 의미한다. 한 자는 대략 18인치 혹은 50센티 미터 가량이다. 곧 본문은 우리가 염려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6: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6:28은 의복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염려에 대한 세 번째 예증 그리고 백합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한다. “의복”도 또한 우리 삶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은유이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와 평행을 이룬다.

그 당시의 의복에 대해서 추론해보면, 직물을 짜내서 즉 길쌈을 해서 의복, 통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한다. 통옷으로 속옷이 없이 한 벌 옷을 입고, 이 옷으로 바깥일도 하고 실내에서도 지냈다고 한다. 부유층은 색깔있는 옷을 입었고, 특히 왕이나 왕족은 자색옷(보라색)을 입었는데, 이 자색염색 과정은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기에 자격이 있는 소수만이 할 수 있었고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한다.

길쌈은 삼실 따위로 베, 모시 등의 직물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모든 과정의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바느질이나 길쌈 등이 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었다고 한다. 6:26과 마찬가지로 6:28도 당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촌과 자연의 비유로서 생생하게 비유를 제공하고 있다. 수고와 길쌈 모두 주어는 백합화로서, 백합화도 6:26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존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지만 생존한다는 모순적인 언급을 예수님께서 6:28에서 하신다. 즉 당시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층민들의 삶의 경험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6:25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다시 말씀하신다. 인물등장)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왕의 신분은 최고 고위 상류층이다. 여기서 솔로몬은 부정적인 예로 나오는 것.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된다. 영광에 대해 사람의 영광이 앞서 마태복은 6:2 에 나온다. 삼상 8장에 사무엘이 예견한 것처럼, 백성이 요구하여 세워진 왕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 권력등을 위해 관리들, 신하, 병력을 많이 둔다. 이것은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과 권력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것의 예가 될 것이다. 부자에 대한 비유중 (누가복음 12:15-21)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탐심을 버리기 힘들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매일 매일 염려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유지할 수 있고 늘릴 수 있을까, 경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염려속에 살아갈 여지가 크다. 반면에 들의 꽃을 보자. ‘들의 꽃’ 은 상류층이 아니다. 사회 소회계층, 가난한 자, 약자에 속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일 매일을 살아간다. 내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들의 꽃과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탐심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솔로몬 왕과 대조) 가르치신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둘 때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마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 땅의 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신다.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6:30은 6:26-30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증거 제시 및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6:30은 6:28-29의 모순에 대한 해결이 제시되는데, 노동하지 않아도 생존할 뿐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난 백합화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기 때문이다. 즉 6:28-29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 6:26에서 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합화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고도 길쌈도 않지만 생존하는 백합화 (6:28): 모순의 제시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는 백합화 (6:29): 모순의 심화

그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 (6:30): 모순의 해결

6:28-29에서 높아졌던 백합화의 지위는 6:30에서 3단계에 걸쳐서 낮아진다. 첫 째로 6:29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했던 백합화는, 6:30에서 백합화가 아닌, 들 풀이라고 불리워 진다. 두 번째로 게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초라한 존재로 언급된다. 세 번째로 오늘/내일의 대조는 백합화의 시간적 유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3단계의 낮춤은 6:28-29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을 영위하고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았던, 백합화와 우리를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즉 “백합화는 들 풀에 불과하고,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결국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태워질 운명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았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했다면, 너희는 어떤가?” 이러한 백합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백합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6:26, 32절). 예수님은 6:26-30에서 세 가지 생생한 예증을 통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신다.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31은 6:30-34의 결론적 진술의 첫 번째 문장이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은 6:30-34의 결론적 진술이 6:26-29 에 대한 추론적 결론임을 나타낸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본 단락의 서론인 6:25에서 제시된 생존에 대한 염려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1세기 식량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권면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고전 학자 피터 간세이는 팔레스타인 랍비들의 문헌에서 가뭄과 가뭄으로 인한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음을 발견한다. 고대 세계에서 가뭄은 식량 위기를 종종 초래하였고, 이러한 식량 위기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사(餓死)시켰다 (예를 들어, 고대 문헌에 나타난 1세기 오데사의 가뭄과 15만명의 아사자들). 물론 이러한 식량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인구 비율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민들이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세기 사회는 약 80%에 해당하는 인구가 극빈에 시달렸으며, 매일의 음식 조달을 통해 간신히 생존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층민들에게 생존은 삶의 목표 그 자체일 때가 많았고, 오늘 먹을 것조차 없을 수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대단히 혁신적이었을 것이다.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곧 6:32은 6:31의 이유를 나타낸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존을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32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6:32에서 이방인은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구분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집단적)의 아버지시라고 불리우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 63: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찌 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개개인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당시에 매우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방인은 산상수훈 내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마 6:7).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접속사 “그런즉”은 영어성경 RSV, NIV에서는 “but”으로 번역한다. 문맥상 “but”으로 시작하는 33절은 32절과의 대조라기 보다는 (32절은 31절의 이유를 제공하는 구절이다) 염려에 대한 금지를 권면하는 31절과의 대조일 것이다. 즉 33절의 말씀은 염려하는 삶에 대한 대안적 삶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산상 수훈의 중요한 주제이다.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6:34절은 접속사 ‘그러므로’와 함께 전체 단락의 결론을 제공한다. 본 구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금지의 권면(그러므로…염려하지 말라)이다. 흥미로운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에서 주어가 “내일”이라는 것이다. 6:3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일 그 자신이 바로 그 자신을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내일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명의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자녀이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의 근간과 근본으로 삼아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6:24),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물질은 물론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신다 (6:32).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는 물질을 삶의 근간과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왜냐면 염려는 불신앙이며, 이것은 물질을 나의 삶의 근간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분의 의로운 통치를 구할 뿐이다. 마태복음 6:25-34의 마지막이 6:34임은 중요하다. 이것은 6:25-34의 기능이 염려하지 말라는 금지의 권면일 뿐 아니라, 다름 아닌 위로임을 보여준다.

1. Martin Goodman, “The First Jewish Revolt: Social Conflict and the Problem of Debt,”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1982)” 418-419. [↑](#footnote-ref-1)
2. Applebaum, “Economic Life in Palestine,” 2:663. [↑](#footnote-ref-2)